
2013년 에콰도르 선거와 라틴아메리카¹⁾

김달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2013년 2월 17일 일요일, 에콰도르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를 비롯하여 총 8명의 대선 후보자가 경쟁했다.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자 860만 2,603명 중에서 라파엘 코레아는 57.17%의 지지로 승리했다. 이번 대통령 임기는 2013년 5월 24일에 시작되어 2017년까지이므로 라파엘 코레아는 2006년부터 11년간 에콰도르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조국동맹(Alianza PAIS)²⁾이 52.30%를 획득해서 절대다수당이 되었다. 새로운 국회의원 배분 방식인 동트 방식³⁾을 적용하게 되면 총 137

1) 이 글은 김달관(2012: 2013)을 수정, 증보한 것이다.

2) 코레아가 이끄는 정치 조직 Alianza PAIS는 'Alianza Patria Altiva i Soberana'의 약자로 '자존과 주권을 가진 조국 동맹'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약자 PAIS가 '조국'을 의미하므로 이 글에서는 '조국동맹'으로 옮긴다.

3) 동트(d'Hondt)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1, 2, 3과 같이 자연수로 나눈다. 나눈 결과가 큰 순서대로 의석

석에서 98~100석의 의석을 배분받게 되어 있다. 이처럼 에콰도르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온 라파엘 코레아의 등장과 성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2013년 에콰도르 대선 동향, 선거 결과,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1. 라파엘 코레아의 등장

1979년 에콰도르에서 민주화의 이행이 시작되면서 1990년 원주민 봉기가 발생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에콰도르에서는 원주민운동이 사회 변화를 선도했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 압달라 부카람(Abdalá Bucaram) 대통령의 탄핵과 2000년 하밀 마우아드(Jamil Mahuad) 대통령 탄핵에서 그 정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루시우 구티에레스(Lucio Gutiérrez)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었던 2005년 4월 시위는 원주민운동이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중산층 시민의 시위였다. 2005년 시위 전까지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이 진보 세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2005년 4월 시위는 시민단체 조직과 관련이 없는 개인들, 새로운 사회단체들이 등장했다. 이것은 기존 정당에 염증을 느끼는 이질적인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의 수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라파엘 코레아와 그를 지지하는 새로운 정당인 조국동맹은 2005년 4월 시위에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하는 기존 정당 체제의 대의제 실패를 지적했다. 코레아의 부상은 새롭게 등장한 진보 세력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했

을 배분한다. 동트 방식을 사용하면 대정당이 과대 대표되어 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정치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정국의 안정을 위해 취하는 비례대표제 선거 방식이다.

다. 한편으로 새로운 진보 단체의 지도자, 군사적 경력을 갖고 있는 사회지도자, 기존 정당인에 의한 시민단체가 부상했고, 다른 한편으로 원주민운동이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상실하는 가운데 코레아가 두각을 나타냈다. 1990년대에는 원주민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에콰도르의 진보 세력이 등장하고 재편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원주민운동 단체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이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때 코레아와 조국동맹은 대의제의 실패로서 정당관료주의(Partidocracia) 반대라는 기치하에 이질적인 사회 세력을 규합했다.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두 우파 세력을 대표하는 알바로 노보아(Álvaro Noboa)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코레아가 주도하는 조국동맹으로 수렴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코레아가 제헌의회 소집을 발표하자 이러한 수렴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2007년 4월 국민투표에서 81%의 국민이 제헌의회 소집에 찬성했다. 제헌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조국동맹은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의 동맹이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조국동맹에는 중도 우파, 환경단체, 여성단체, 진보적 교회 세력, 신구 진보 정치인, 비전문가 시민 등이 포함되었다. 조국동맹은 다른 정당들과도 갈등했지만, 금융권, 거대 미디어 단체, 경영인 단체, 다국적 기업, 과야킬 엘리트 등과도 대립했다. 제헌의회에서 환경 문제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광산 개발 범위, 수자원에 대한 쟁점, 원주민 거주 지역 내의 천연자원 개발 시 원주민 공동체의 사전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제헌의회 의장인 알베르토 아코스타(Alberto Acosta) 지지 세력과 코레아 지지 세력 간에 격렬한 논쟁이 발생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시민혁명’의 대표자인 코레아 대통령은 알베르토 아코스타 의장과 소원하게 되었고, 원주민운동 단체와 관계도 서먹서먹하게 되었다.

2009년 4월 신헌법에 따라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었다. 1차 투표에서 코레아가 52%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동맹은 의회에서 절대

다수당이 되지 못했으며, 에콰도르에서 크고 중요한 선거구인 과야퀸 시장과 주 지사에 출마한 조국동맹 후보들이 패배했다. 2009년 1월 원주민 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이 광산 개발에 반대하면서 코레아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에 코레아는 폭력으로 대응했다. 그 이후 코레아 정부는 에콰도르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수자원법에 대한 원주민 단체들의 시위, 교원노조의 저항, 대학법에 대한 대학생들과 교수들의 시위가 발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천연자원 개발 방식과 발전 모델을 둘러싸고 여러 사회 진보 단체들 사이에 왕성한 논쟁이 벌어졌다.

2.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성과

2013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패 스캔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라파엘 코레아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선거를 코앞에 둔 2012년 12월 19일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사촌인 페드로 델가도가 에콰도르 중앙은행 총재직을 사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드로 델가도가 경제학과를 수료했는데 졸업했다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친구들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근의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것은 라파엘 코레아의 지지가 아직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보적인 국가 개혁인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라파엘 코레아의 대선 당선은 1979년 민주화 이행 이후 정당정치의 후퇴와 전통적인 정당 및 지도자가 정치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에콰도르는 석유 붐에 기초해서 2010년에는 13% 성장했고, 2011년에는 8%

성장했다. 2011년에 많은 공공투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외채는 GDP의 24%에서 14%로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 빈곤율은 36.7%에서 27%로 감소했다. 2012년 말 실업률은 4.1%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최근 2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재정수입은 2006년에는 GDP의 12%였으나, 19%로 확대되었다. '인간 개발 쿠폰'(Bono de Desarrollo Humano)을 200만 명의 빈곤층에게 지급했고, 쿠폰 액면가도 35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했다. 도로 건설에도 이전 정부보다 3배 많은 투자를 했고, 교육 재정도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2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라파엘 코레아 정부가 점점 권위주의적 성향을 띠고, 비판을 잘 수용하지 않으며, 언론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3. 2013년 2월 대선 동향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과정은 2단계로 되어 있다. 첫 단계는 2013년 2월 17일에 실시되는 선거다. 이 선거 결과 어떤 대선 후보자도 4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거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사이의 격차가 10% 미만일 때는 두 번째 단계로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결선 투표는 2013년 4월 7일이고, 결과 발표는 5월 13일 이전이다. 새로운 대통령 임기는 5월 24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도 2월 17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되고 13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현재 에콰도르 인구 1,400만 명 중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는 1,140만 명이며, 해외에 23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 2013년 2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등록은 2012년 10월 19일에서 11월 15일까지다. 정치 단체나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의 1.5%에 해당하는 15만 명의 지지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64개의 지방 정당 및 정치 단체, 전국 규

모의 11개의 정당 및 정치 단체가 대통령 후보 등록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 중에서 11개의 정당과 정치 단체만 실제로 등록하였다.

선거운동은 2013년 1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42일간 계속되었다.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대중매체도 대선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지 다른 대선 후보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만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릴 수 있을 뿐이다.

2012년 9월 현재 대통령 예비 후보자 중에서 현직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여론도 이변이 없는 한 라파엘 코레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유력한 후보자는 5명이다. 그중에 변호사이자 기업인이며 에콰도르에서 가장 부자인 것으로 알려진 알바로 노보아가 있다. 알바로 노보아는 지금까지 대선에 무려 4번이나 출마한 경력이 있다. 이번까지 합하면 5번째 출마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력 후보자로는 여론 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기에르모 라소(Guillermo Lasso)가 있다. 기에르모 라소는 과야킬의 금융인 출신으로서 행정부와 의회에서 정치 경험이 있다. 전 대통령 루시오 구티에레스도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루시오 구티에레스는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인해 2005년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 해임된 전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 행정부 장관, 의회 의장, 대학 교수 출신으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알베르토 아코스타가 있다. 알베르토 아코스타는 2008년 헌법의 핵심 개념인 수막 카우사이를 주창한 사람이다. 헌법 전문에서 국가 목표(Decidimos construir)로 설정한 수막 카우사이는 “다양성 및 자연과 조화에 기초한 공생의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을 중시한다. 알베르토 아코스타는 현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과 함께 야수니 국립공원에 있는 석유 자원의 발전보다는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특이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는 파브리시오 코레아가 있는데, 현 대통령과 친형제간이다.

표1 | 2013년 대선 출마자 여론조사 (조사기간: 2011년 10월 ~ 2012년 10월까지)

여론조사 날짜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결과
2011년 10월 22일	CEDATOS	① 라파엘 코레아 40% ② 하이메 네보트 17.5%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5% ④ 알바로 노보아 3.1%
2011년 11월 12~13일	Perfiles de Opinion	① 라파엘 코레아 48.9% ② 하이메 네보트 15.7% ③ 알베르토 아코스타 6.9%
2012년 3월 14~16일	CMS	① 라파엘 코레아 48.56% ② 루시오 구티에레스 8.09% ③ 알바로 노보아 6.98% ④ 기에르모 나소 4.60%
2012년 4월 14일	SP Investigaciones	① 라파엘 코레아 39% ② 알바로 노보아 3%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3%
2012년 4월 29일	Perfiles de Opinion	① 라파엘 코레아 50% ② 하이메 네보트 10%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4% ④ 알베르토 아코스타 4%
2012년 5월 30~31일	Perfiles de Opinion	① 라파엘 코레아 52% ② 하이메 네보트 9% ③ 기에르모 라소 6% ④ 알바로 노보아 4%
2012년 7월 14~15일	Informe Confidencial	① 라파엘 코레아 50% ② 기에르모 라소 17%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8% ④ 알바로 노보아 4%
2012년 8월 4일	Opinion Publica	① 라파엘 코레아 43% ② 기에르모 라소 7%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5% ④ 알바로 노보아 4%
2012년 8월 4~5일	Perfiles de Opinion	① 라파엘 코레아 53.4% ② 기에르모 라소 14.4% ③ 알바로 노보아 6.7% ④ 알베르토 아코스타 4.9%
2012년 8월 14~16일	CMS	① 라파엘 코레아 41.75% ② 기에르모 라소 15.82%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8.22% ④ 알베르토 아코스타 6.55%
2012년 8월 18일	Opinion Publica	① 라파엘 코레아 44% ② 기에르모 라소 8%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4% ④ 알바로 노보아 3%
2012년 9월 8일	Opinion Publica	① 라파엘 코레아 44% ② 기에르모 라소 9%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5% ④ 알바로 노보아 2%
2012년 9월 15~16일	Informe Confidencial	① 라파엘 코레아 48% ② 기에르모 라소 18%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8% ④ 알베르토 아코스타 5%
2012년 9월 11일과 26일	Perfiles de Opinion	① 라파엘 코레아 55% ② 기에르모 라소 11%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6% ④ 알베르토 아코스타 3%
2012년 9월 29~30일	Perfiles de Opinion	① 라파엘 코레아 61% ② 기에르모 라소 12%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3% ④ 알베르토 아코스타 2%
2012년 10월 7일	CEDATOS	① 라파엘 코레아 44% ② 기에르모 라소 18%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6.9% ④ 알베르토 아코스타 6.5%
2012년 10월 22일	Market	① 라파엘 코레아 39% ② 기에르모 라소 24%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12% ④ 알베르토 아코스타 4%
2012년 10월 28~30일	Market	① 라파엘 코레아 40% ② 기에르모 라소 23% ③ 루시오 구티에레스 15% ④ 알베르토 아코스타 6%

자료 | Wikipedia, "Ecuadorian general election, 2013." (필자 재구성)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여론 동향을 보면, 부동의 1위는 라파엘 코레아였다. 라파엘 코레아는 최소 39%에서 최대 61%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2위는 3%~24%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초기에는 1위와 2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역적·사회경제적 특징이 드러났다. 일례로 2012년 10월 7일 15개 도시에서 16세 이상의 에콰도르 시민 2,320명을 직접 인터뷰한 CEDATOS의 여론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적 특징을 보면, 진보적 성향을 대변하는 라파엘 코레아는 키토(47%), 내륙지역(45%), 과야퀸(42%), 해안지역(43%), 아마존지역(44%) 등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보수적 성향을 대변하는 기예르모 라소는 지역적으로 과야퀸(20%), 해안지역(19%), 키토(17%), 내륙지역(16%), 아마존지역(13%) 등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라파엘 코레아의 지지층은 하층(47%), 중산층(42%), 중상층 및 상층(38%) 등으로 나타났다. 기예르모 라소의 지지층은 상층 및 중상층(24%), 중산층(20%), 하층(16%) 등으로 나타났다. 여론 지지 동향과 현지 여러 인사의 예상을 종합하면, 현 대통령인 코레아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2013년 에콰도르 선거 결과

2013년 2월 17일에 실시된 대선 결과, 현직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가 57.17%로 당선되었다. 이에 결선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2위는 금융인인 기예르모 라소가 차지했다. 기예르모 라소는 57세의 금융인으로서 에콰도르의 중요한 은행 중의 하나인 과야퀸 은행의 총재를 역임했고,

표2 | 2013년 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득표수	%
라파엘 코레아	4,918,482	57.17
기예르모 라소	1,951,102	22.68
루시오 구티에레스	578,875	6.73
마우리시오 로다스	335,532	3.90
알바로 노보아	319,956	3.72
알베르토 아코스타	280,539	3.26
노만 레이	112,525	1.31
넬스 사발라	105,592	1.23

자료 |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CNE)

1999년 하밀 마우아드 정권에서는 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경제부 장관 시절에 은행예금을 동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2000년에 달러화 사용을 선언하게 되었다. 현재도 에콰도르에서는 공식 화폐로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 밖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1~6%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전통적인 정당들은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라파엘 코레아는 57.17%로 1위를 차지했고, 기예르모 라소가 22.68%로 2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는 34%포인트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대선 출마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위는 라파엘 코레아로서 변함이 없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2위는 기예르모 라소로 굳어지는 상황이었다. 2012년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파엘 코레아는 40%, 기예르모 라소는 23%였다. 대통령 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기예르모 라소의 득표율은 여론조사 지지율과 거의 같다. 다만 라파엘 코레아는 여론조사 때보다도 17%가 더 상승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라파

엘 코레아가 큰 격차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트 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실제 지지율보다 높은 의석을 배분받아 국회의 정치적 안정을 높여려는 데 목적이 있다.⁴⁾ 아무튼 여당인 조국동맹은 총 137석 가운데 98~100석을 배분받게 되는데, 이것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동맹이 국회의 절대다수가 되었다. 이것은 라파엘 코레아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예전과 차이가 있었다. 기존에는 18~65세 사이의 에콰도르인은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연령을 16세로 낮추었다. 다만 16세와 17세의 경우 의무가 아니라 유

표3 | 2013년 2월 총선 결과

정당	유효투표수	%
조국동맹(Alianza PAIS)	45,933,888	52.30
기획현대운동(CREO)	10,030,020	11.42
기독교사회당(PSC)	7,883,237	8.98
애국사회당(PSP)	4,954,149	5.64
좌파연합(Unidad Plurinacional)	4,149,849	4.73
롤도스당(PRE)	3,957,459	4.51
수마운동(SUMA)	2,828,056	3.22
제도개혁당(PRIAN)	2,638,469	3.00

자료 |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CNE)

4) 에콰도르 국회의원 정원은 137명이다. 이 가운데 전국구 의원(Asambleísta Nacional) 정원은 15명, 수도와 지방의 선거구 의원(Asambleísta Provincial y Distrital)의 정원은 116명, 재외국민 의원(Asambleísta de los Migrantes) 정원은 6명이다. 전국구 의원 15명은 웹스터 방식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122명은 동트 방식으로 선출한다.

권자의 자유의사에 맡겼다. 그리고 23만 명의 해외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선거 참관을 위해 미주기구(OEA), 남미국가연합(UNASUR) 등 국제기구에서 320여 명의 참관단을 에콰도르에 파견했다. 국제기구 참관단은 2013년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2013년 2월 총선에서 조국동맹이 52.30%를 획득했고, 2위로는 '기회확대운동'(CREO: Creando Oportunidades)이 11.42%를 차지했으며, 3위로는 기독교사회당(PSC: Partido Social Cristiano)이 8.98%를 차지했다.

5. 라틴아메리카는 어디로 가는가?

2001년 9·11 사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재정위기는 신자유주의 위기이면서 자본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 1990년대 20:80 사회에서 최근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서 표명되었듯이 1:99 사회로의 이동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자본주의가 내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 식으로 이해하자면, 신자유주의에 의해 시장자유주의가 확대되는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 노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총체인 사회의 자기 보호 과정으로서 ‘이중적 운동’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파열음으로 인해 거대한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인류의 투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서 광범위한 변혁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걸친 변혁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산토스는 국가 개혁의 어려움을 2개로 보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종결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종결을 고려

하지 않으면서 개인주의(vs. 공동체), 경쟁(vs. 상호성), 이익(vs. 보완, 유대) 원칙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축적 방식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개선하려고 시도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의 룰라(Lula da Silva) 대통령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주의 붕괴라는 관점에서부터 ‘자본주의 이후’(Post-capitalism)의 대안을 고려하거나, 자본주의가 신대륙에 이식되기 이전인 원주민 사회에서 작동했던 경제에서 대안을 상상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원주민운동은 정복 이전 시대의 원주민 사회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모델을 찾으려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21세기 신사회주의’로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을 찾고자 하며, 쿠바의 경우는 ‘토착적 사회주의’로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을 찾고자 했다. 둘째, 식민성의 종결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적 식민성이 독립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식민성이 보다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반자본주의와 탈식민성이 정치적 목표다. 계급 지배와 인종적·종족적 지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원주민 세계관에서 대안을 찾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급진적 민주주의에서 찾고자 했다. 브라질을 대표로 하는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기존 자본주의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포스트 신자유주의 운동에서 에콰도르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막 카우사이다(김달관, 조영현 2012a; 2012b 참고).

2013년 재선에 성공한 코레이는 진보적 국가 개혁으로서 수막 카우사이를 계

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수막 카우사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달관, 조영현. 2012b.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31(2): 127~160.
- 김달관. 2013. 「2013년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전망」. 『웹진 라틴아메리카』 20.
http://www.iberoamerica.kr/webzine/20/01_3.html
- CNE(Consejo Nacional Electoral). Elecciones 2013.
<http://resultados.cne.gob.ec/Results.html?RaceID=1&UnitID=1&IsPS=0&LangID=0>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l Ecuador(2008).
http://www.asambleanacional.gov.ec/documentos/constitucion_de_bolsillo.pdf
- Wikipedia. 2013. “Ecuadorian general election, 2013.”
http://en.wikipedia.org/wiki/Ecuadorian_general_election,_2013